

F. Kafka의 „Der Jäger Gracchus“研究

朴 煥 德
(人文大獨文學科)

I

美意識一般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美學이 붕괴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形而上學的 美學이 대두하게 된 20세기 초 <存在>의 문제가 예술영역 특히 文學의 분야에서 크게 클로즈업되었다.

기계문명에 의한 人間의 平均化와 集團化 그리고 그로 인한 自己 疎外, 공동사회에 대한 個人的 疎外, 人間存在의 독자적인 방법인 實存의 자각, 이러한 위기상황의 기반 위에서 카프카의 문학은 탄생되었다. 새로운 時代는 새로운 形式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형식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대도기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카프카의 문학은 분명 난해하다. 근대문명에 의한 인간의 水平化, 集團化 그리고 인간의 自己 疎外, 歷史와의 단절 등으로 인한 古典적인 의미에서의 美의 파괴로 말미암아, 새로운 美學的 카테고리의 해명없이는 카프카의 문학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Rilke의 말처럼 예술작품이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오직 感受하고, 그의 美를 享受하면 되는 것이다 할지라도, 카프카의 문학을 정확하게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그의 문학의 本質에 적합한 그리고 그 본질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美學的 카테고리를 의식으로까지 높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문학작품을 이해한다 함은, 그 작품의 文字 그대로의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의 意味속에 숨어 있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려내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언뜻 알아볼 수 없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캐어내는 작업을 뜻한다.

카프카의 문학이 <存在>의 문제, <意識>의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된 시기에 이룩되었다 함은 위에서도 지적했거니와, 그의 문학은 <人間存在> 그 자체를 言語形式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人間存在에 대한 명확한 증명없이는 전혀 이해되어질 수 없는 문학이다. 카프카의 문학은 현대의 상황에서 生의 위협을 직접 체험하고, 그 근본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하는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이 작은 研究는 生과 死, 진실과 허위 등 여러 모순의 긴장속에 자리하고 있는 人間存在 그 자체의 진실된 구조를 밝히는 실존주의적 입장에 서게 된다. 한편 난해한듯 보이는 그의 모든 작품에는, 하나의 통일된 핵심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작품들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구조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는듯이 보이나, 세심한 관찰에 의해서 분석한다면, 하나의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적이고 통일된 〈약속〉의 해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작품전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의해서 그의 小品 „Der Jager Gracchus“¹⁾를 다루기로 한다. 구조주의는 의식되지 않은채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숨은 〈약속〉을 밝혀내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그의 세편의 Roman의 모델²⁾이라고 할 수 있는 바꿔 밀하면 동일한 약속에 의해서 이룩되어 있는 小品 „Der Jager Gracchus“의 해명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작품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言語의 약속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어밑에 깔려 있는 숨은 의미를 가려내는 것이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이다.

이 小品을 읽게 되면, 그의 다른 모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독자는 정신적으로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한채 허공에 뜬 세계를 방황하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현실적인 時間空間의 관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꿈속의 세계를 헤매이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꿈의 세계라고 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외부적인 생활에 대한 묘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밀정확하다. 이 작품에서의 주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러나 동시에 벌써 잊고 있는, 즉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이다³⁾. W. Emrich의 표현으로는 이 작품은 宇宙的인 이야기⁴⁾, 바꿔 말하면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小品에 등장하는 생존해 있는 방문객은, 죽어 있으면서 어느정도 살아있는 주인공을 매우 흥미있게 느끼고는 있지만,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가지 이해하지 못한다⁵⁾. 그것은 마치 카프카의 독자가 카프카의 작품이 매우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막상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백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독자에게는 매혹적인 꿈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며 지금껏 감추어져 있던 심오한 비밀이 뚜렷하게 눈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눈을 다시 뜨고서 백주의 의식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느낀 바를 자신에게 설명할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재현시켜 언어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무력함을 알게 된다. 독자도 역시 자신이 읽은 바를 현실의 의식속에 옮길 수가 없

1) „Der Jager Gracchus“는 1916년 12월 하순에 쓰여진 小品이다. 이 작품의 Vorfassung인 „Fragment zum Jager Gracchus“는 1917년 4월에 쓰여졌으며, 異稿 „Auf dem Dachboden“은 1916년 12월 중순에 쓰여졌다 또한 1917년 4월 6일자 Tagebucher에는 또 다른 異稿가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편의 異稿가 전체로서 하나의 작품 „Der Jager Gracchus“를 이루고 있다.

2) W. Emrich Franz Kafka, Wiesbaden 1975, S 15.

3)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Frankfurt a. M. 1976, Band V S 250

4) Vgl. W. Emrich. ebd. S 15

5) F Kafka· ebd S 248

며, 거기에 대한 확신있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카프카의 작품에 나타난 人物들이 우리들의 現實을 직접적으로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現實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인상할 수 없다.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주의적 성실성으로 묘사된 요소들에 의해서 하나의 다른 세계가 탄생하게 된다. 그 세계에서는 現實과 환상이 하나가 되고, 論理的인 것과 不條理한 것이 같은 평면위에서 하나로 결부되어 있다. 하나의 比喩의인 삶의 전형을 본다. 비록 경험의 세계에서 직접 실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죽어 있으면서 어느정도 살아있는 사냥꾼 Giacchus의 이야기는, 두개의 세계 — 하나는 人間이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의 노동세계요, 다른 하나는 自然의 순환적인 세계 — 사이의 共存과 斷絶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⁶⁾. 인류의 역사는 自然의 순환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을 가진 직선적인 道程을 밟음으로서 시작되었고, 그 배반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近世에서 現代에 걸친 최대의 변화는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商品의 대량생산과 판매시스템의 확대이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인간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상품이 제조되지 않고, 인간은 오직 상품구매자로서만 필요하게 되었다. 人間의 주체적인 가치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인간과 物과의 價値轉換이 이룩된 것이다. 특수나 個別은 이미 배제되고, 모든 것은 오직 平均化되고, 平均化되지 않는 것은 부정되어진다.

人間은 공동과 타협 밑에서 平均化되고, 대중 속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의 삶을 잃게 되었다. <自己>를 상실한 현대인간은 경험적으로는 살고 있으나 이미 자신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현대의 노동세계 즉 有用性和 合目的性에 봉사하면서도 다른 한편 非日常的, 無時間的, 非有用性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암시>에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Der Jager Giacchus“의 테마이다. 주인공 Giacchus는 두개의 存在樣式 — 現實의인 노동의 세계와 生과 死를 하나로 포괄하는 총체적인 세계 — 를 갖고 있다.

W. Emrich가 지적하고 있듯이, 카프카의 形象世界에 접근하는 길은 이 두 세계 — 歷史意識의인 세계와 근원적 存在世界 — 사이의 差에 대한 정확한 인식⁷⁾뿐이다.

II

카프카문학의 形象世界는 두개의 상호 대립하는 세계의 對比的인 제시에 있다고 할 수

6) Vgl. W. Emrich ebd S 40

7) Vgl. W. Emrich. Die Bilderwelt Franz Kafkas, in Protest und Verheißung, Frankfurt/M., 1960

있다⁸⁾. 小品 „Der Jager Gracchus“는 그의 구성에 있어서 이 두 세계의 對立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세편의 Roman의 전형이 되고 있다. 이 小品에 있어서는 두 세계의 對立과 抗爭의 영원성이 철저히 부각되어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아주 먼 옛날, 약 1500년전에⁹⁾ Schwarzwald의 사냥꾼 Gracchus가 사냥 도중에 실족하여 절벽으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여, 저승으로 운반할 조각배에 타게 되었는데, 그 조각배는 항로를 잘못 잡아 이 세상의 물 위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되는 두개의 모티브를 본다. 그 하나는 숲 속에서 사는 즉 육지인으로서의 사냥꾼의 모티브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물위에 표류하고 있는 조각배의 모티브이다. 카프카는 이 작품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 두개의 모티브를 하나로 결부시키고 있다. 육지에서 바다와 거리가 가장 먼 숲 속의 사냥꾼을 배에 태워서는 물위에 표류하게 하는, 즉 사냥꾼이 뱃사공의 수호신이 되는 극히 不條理한 상황의 설정이다. 육지에서만 거주하던 사냥꾼이 물위에 표류하게 됨으로서 생기는 물에 대한 不適應性, 이제는 15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물위에서 표류한 뱃사공의 수호신인 사냥꾼이 도리어 육지에 대하여 갖게 되는 不適應性, 이 二重의 不適應性에 Gracchus는 시달리게 된다.

사냥꾼 Gracchus의 모습의 배후에 카프카 자신이 서 있음은, 그의 日記¹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거니와, Gracchus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추론할 수가 있다. Gracchus는 語源上으로 보면 graculus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Dohlen, Krahen, Raben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¹¹⁾. 체코어의 kavka는 곧 Dohlen을 의미하기 때문에, Gracchus는 곧 Kafka를 뜻하고 있다.

죽어 있으면서 어느정도 살아있는 주인공 Gracchus는 카프카 자신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二重, 三重으로 疎外된채 삶에 시달리는 現代人像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카프카의 생애와 카프카의 작품은 상호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가 몸소 실천한 그의 생애와, 그의 작품 사이에는 무한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의 日記를 읽게 되면, 매우 많은 回想, 觀察, 꿈의 이야기, 短篇 혹은 長篇의 斷片 등이 여기저기에 混在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日記를 읽는 독자가 斷片集을 읽고 있는 인상을 받지는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

8) “Der Prozeß”에서는 주인공 Josef K.와 不條理체 관소와의 對立, “Das Schloß”에서는 주인공 K와 눈덮인 城과의 對立 등

9) F. Kafka: Gesammelte Werke, Band V. S. 248.

10) F. Kafka: Tagebucher, Frankfurt a. M. 1975, S. 399.

11) W. Emrich Franz Kafka, S. 21.

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의 회상에 의한 것인지 혹은 하나의 꿈의 이야기인지, 혹은 픽션인지 금방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 카프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꿈이든 픽션이든 회상이든 이三者사이에는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三者는 함께 하나의 동일한 平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작품을 읽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앞 부분¹²⁾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의 단편이나 장편을 읽는 경우에, 독자는 정신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어느 한 世界에서 방황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된다. 현실의 時間的인 空間的인 世界에서는 불가능한, 오직 꿈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전개된다. 그렇다고 꿈의 세계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세계와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꿈의 어느 의식하에서 결합하는 과정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과정이 진행된다.

다만 時間과 空間,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경험적인 질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독자는 소위 일상적인 현실 意識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속에 놓여 있음을 느낀다. 시간과 공간, 因果性이라고 하는 경험적인 질서는 완전히 지양되어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자신의 경험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현실적인 것으로도 가능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무엇 하나 살아갈 자격을 받지 않고 온것 같다. 받은 것은 쓸모없는 인간적인 약점뿐이었다. 이 약점으로서 —이 점에서는 그것은 거대한 힘이다— 나는 나에게 극히 가까운 나의 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힘있게 들어 올렸다. 나는 시대에 이기는 힘이야 없지만 어느정도 그것을 대표하는 힘은 가지고 있다. (中略) 나는 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이다.“¹⁴⁾

遺稿 중에서 발견된 그의 手記의 일부분이다. 여기에는 카프카의 存在와 文學이 주는 ऐ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그는 시대의 부정적인 면만을 대표하는데 일생을 바친 각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일생은 고뇌의 연속이었는데, 이 상처는 그의 탄생과 동시에 시작된다. 그는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나, 유럽화한 소위 <西方유태인>이었다. 民族으로서의 강인한 존재를 의연히 이어온 東方유태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유태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세계에는 속할 수 없었다. 그는 독일어 사용자로서 체크코인은 아니었고, 독일어를 사용했다 해서 보히미아독일인도 아니었으며, 보히미아 태생으로서 오스트리아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그는 노동자재해 보험국의 관리로서 일반 시민계급에 속하지도 아니 했으며, 工場主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노동자 계급은 물론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作家로 자처했으니 철저한 官吏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12) 本稿 I 을 말함.

13) W Emrich Zur Ästhetik der modernen Dichtung in Protest und Verheißung, S 123

14) F Kafka ebd. Band VI S 89 (譯書「標題없는 隨想」三中堂, 1978 p. 102)

지배하는 가정을 위해서 소모하였으니 완전한 의미의 作家라고도 할 수 없다¹⁵⁾. 그는 많은 세계에 조금씩 속하면서, 그 어느 것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의 〈異邦人〉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숙명적인 탄생이었고, 그는 일생동안 줄곧 이 상처에 시달렸다.

카프카는, 존재한다는 것은 〈Da-sein〉만이 아니고 〈Ihm-gehoren〉¹⁶⁾을 의미한다고 쓰고 있다. 바꿔 말하면, 人間存在는 단지 世界內存在일 뿐이 아니고, 동시에 世界所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한 세계에 소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세계에도 소속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存在가 아니다.

어느 세계에도 소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存在를 상실하고 있음을, 存在의 제로地點에 〈流刑〉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는 存在喪失이라고 하는 原罪를 걸머지고 태어났다. 그의 전생애의 고뇌와 노력은, 어떻게 해서 세계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세계에 소속하게 될 것인가, 즉 어떻게 해서 〈세계〉의 座標위에 존재의 數値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카프카의 作品은, 카프카 자신으로부터 배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카프카는 자신의 作品을 자신이 인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作品에 의해서 이끌려 갔으며, 결국에는 그 자신이 그의 作品과 一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作品은, 성취해야 할 目的이나 企劃이 아니고, 거꾸로 자신이 作品의 노예가 되고 희생자가 된 主人이었다.

카프카의 作品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카프카 자신이다. 카프카는 꾸준히 회의와 죄의식을 갖고서, 탄생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추구하고, 자신을 발아드릴 장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타인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存在의 정당성〉을 밝힐 수는 없었다. 이것은 不可能한 일이었다. 카프카가 시달린 것은 〈진실을 하나의 육체와 영혼 속에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근원적인 상황때문이었다.

„허위의 세계에 있어서, 허위는 자신의 對立物에 의해서 세계로부터 제거되어지는 않는다 허위를 제거하는 길은, 진실의 세계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¹⁷⁾

카프카의 피나는 투쟁의 목표는 진실을 하나의 육체와 정신 속에 갖는 것이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프카의 作品은 自傳的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종의 虛構形式 속에 위장되어 있는 自傳은 아니다. 거기에 직접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보통의 객관적인 自傳으로는 표현불가능한 것이다. 自傳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의 作品은 극히 現實的인 이야기로 엮여져 있다. 그것은 그의 生의 內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存在의 총체를 이루고 있는 家族, 社會, 物質上의 영역등이 그 內容을 이루고

15) Vgl. K. Wagenbach' Franz Kafka. Eine Biografie seiner Jugend (1883~1912). Bern, 1958

16) F Kafka. ebd. Band VI. S 66.

17) F Kafka ebd S 80.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카프카특유의 光學에 의하지 않고서는 드러나 볼 수 없다. 카프카의 作品에는 그의 生の 구체적인 現實과 그리고 꿈이 하나로 완전히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現實과 꿈이 융합되어 있음으로서 비로소 傳達不可能한 내용이 傳達可能하게 된다.

IV

陸地에도 水上에도 완전히 소속할 수 없는 Gracchus의 存在方式은 그의 生과 死에 똑같이 소속하지 못하는 存在方式과 동일하다. 그는 분명 절벽에서 추락하여 죽었지만, 그의 시체는 항로를 잘못잡은 조각배에 실린채 이 세상의 물 위에 남아 있게 됨으로서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살아 있는> 것이다.

„Der Jager Gracchus“의 Vorfassung인 „Fragment zum Jager Gracchus“에는 訪問客과 Gracchus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실려 있다.

„Gracchus, eine Bitte Sag es mir zuerst kurz, aber zusammenhangend, wie es mit dir steht Um die Wahrheit zu gestehen ich weiß es namlich nicht. ...“

Ach, in Zusammenhang. Die alten, alten Geschichten Alle Bucher sind voll davon, in allen Schulen malen es die Lehrer an die Tafel, die Mutter traunt davon, wahrend das Kind an der Brust trinkt, es ist das Gefluster in den Umarmungen, die Handler sagen es den Kaufern, die Käufer den Handlein, die Soldaten singen es beim Marsch, der Prediger ruft es in die Kirche... “¹⁹⁾

Gracchus의 이야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먼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宇宙마저 알고 있는, 극히 보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一般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세상에 줄곧 살고 있는 자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처럼 많기 때문이다“²⁰⁾. 경험적인 세계에서의 정신적인 고뇌 그리고 육체적인 노고, 즉 살아있기 때문에 걸머지고 있는 人生의 무게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참된 의미의 <보편자>에 대한 생각과 이에 대한 精確한 知識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Gracchus측에서는 이 세상의 일에 쫓기는 人間世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가장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는 이 근면한 후원인들(人間世界)의 思考의 進行²¹⁾에 대해서 이해하-

18) Vgl F Kafka ebd. Bd. IV. S 57ff

19) F Kafka. ebd Bd V S 249f

20) W Emrich. Franz Kafka, S 14.

21) F Kafka ebd Bd. V. S. 250.

지 못하고 있다.

Gracchus는 그 방문객에 대하여, 후원인들의 사고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나, 사실상 그 설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개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교차하고 결코 포개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So komisch es dir scheinen mag, hier wunderte ich mich fast selber darüber, aber es ist doch so, du bist nicht der Gegenstand des Stadtgesprächs, von wie vielen Dingen man auch spricht, du bist nicht darunter, die Welt geht ihren Gang und du machst deine Fahrt, aber niemals bis heute habe ich bemerkt, daß ihr euch gekreuzt hättet“²²⁾

두개의 세계사이에서는 이미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세계는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두개의 세계, 이것이 바로 카프카 文學의 모델이다²³⁾.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의 특정한 세계에 불과하다. 즉 우리들의 세계인 것이다 우리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세계 안에서만 유유히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세계의 法則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측정하든 시간을 헤아리든 因果關係를 논하든, 이미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는 自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다른 세계에 발을 딛게 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고, 호흡곤란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固有의 방법으로 관찰하고 思考하기 때문이다. 카프카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두개의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카프카의 공상적인 構成이 아니고,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현실세계이다. 옛날에는 (1500년전) 現世적인 그리고 超現世적인 位置를 규정할 수 있었던 人間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現世적인 超現世적인 世界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今世紀에는 이미 확신을 부여하는 現世的 및 形而上學的의 表象이나 秩序가 不在하기 때문이다.

다시 本論으로 돌아간다. Gracchus의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普遍的인 一般者의 本質은, 그가 이 세상의 秩序에서도 彼岸의 世界에서도 똑같이 墮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宇宙의으로 遍在해 있으나,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에 조금씩 관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²⁴⁾.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그러나 어느 부분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어느 存在者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카프카 자신의 역사적인 상황 바로 그것이다. 1500년 전에는 現世적인 超現世적인 世界를 이해할 수 있었던 人間이 지금은 抽象적인 表象世界로부터도 墮락의 세계로부터도 이탈되어 있다. 옛날의 사냥꾼은 지금은 한 마리의 <나비>²⁵⁾가 되어 모든 領域시이를 날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경험적인

22) F. Kafka. ebd S 250

23) W Emrich ebd S 15

24) W Emrich ebd S 16.

25) F Kafka ebd. Bd. V. S 77.

규정도 어떠한 形而上學的인 규정도 통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凡常의인 규정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은, 카프카의 다른 거의 모든 作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방심한 상태 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들은, 자신의 表象으로는 전혀 해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에 갑작스럽게 놓이게 된다. 잠에서 깨어난 Gregor Samsa 는 甲蟲으로 변신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²⁶⁾. 『審判』에서의 Josef K 는 잠에서 깨어나 체포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²⁷⁾. Giacchus 를 黃泉으로 운반해 가야 할 조각배는 „항로의 잘못으로“²⁸⁾ 인하여 끝내 저승으로 가지 못한채 이 세상 물위에 포류하고 있다. 카프카의 作品世界에 있어서는, 人間이 스스로의 생활을 규정하고 해명하는데 있어서 그 判斷規準이 되어 있던 觀念이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Giacchus 의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여전히 이 지상에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점이다.

„나는 단지 내가 이 지상에 머물고 있으며 나의 조각배가 그때 이래로 이 세상의 물위를 향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²⁹⁾

현대 인간은 이 지상에 김금된채, 죽은 뒤에도 彼岸에 닿을 수 없다. 아무리 彼岸에 가고자 노력한다 해도, 인간은 그 뜻을 끝내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에 轉落한 현대인간상을 우리는 여기에서 본다. 이 세상에 머물어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 있는“ Giacchus 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소속원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의 살아 있는 어느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도 역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살아있는 이 人間은, 도리어 그 때문에 時間的인 空間的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宇宙的인 展望을 가질 수 있다. 이미 옛날에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인 知識을 소유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生과 死의 中間的인 위치로 인하여 現世的인 秩序와 超現世的인 질서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방향을 잃은채 이 세상의 물위를 향해하고 있는 Giacchus 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분명한 삶을 보내고 있는 살아 있는 자의 제한된 表象世界를 이해할 수 없으며, 彼岸의 門에도 도달할 수 없다.

„커다란 비약을 해서 천국의 문이 보일 것 같은 곳에 왔다고 생각하고서 눈을 떠 보면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베에 타고 있습니다“³⁰⁾.

현대 인간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노동에 의해서 이미

26) F. Kafka ebd. Bd. IV S. 57.

27) F. Kafka: ebd. Bd. II. (Der Prozeß)

28) F. Kafka: ebd. Bd. V S. 77.

29) F. Kafka: ebd. S. 77.

30) F. Kafka: ebd. S. 77f

有限化되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없다. 단지 죽음에 직면해서야 잠깐 예감 같은 것을 느낄 뿐이다³¹⁾. 노동의 세계에 있어서는 죽음 그 자체도 실은 게 거되어 있다. 실질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죽음마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현대인들은 전락하고 있다.

이 세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Giacchus의 比喩는, 地上에서 극히 〈精神的으로〉 완전한 人間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不可欠한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린 현대에 있어서는 理解不能한 것이다. 時空을 초월한 宇宙의인 知識을 소유하는 길은, 이 제한된 平凡한 表象世界와 秩序世界로부터 이탈함으로써인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이 이탈은 카프카의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고뇌와 절망의 원천이며, 동시에 그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不懷의 세계를 창조하여³²⁾ 스스로 영원히 살아남겠다는 카프카의 소망의 원천이기도 하다. 카프카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生과 死의 그리고 此岸과 彼岸의 경계에서 투쟁한다.

V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카프카의 작품에 있어서는 두개의 秩序 즉 經驗世界의 그것과 精神世界의 그것이 지양되어 있다. 우리들의 경험적인 현실과 정신적인 현실에 각각 속해 있는 요소들이 아무런 매개없이 상호 침투하고 있다. 인간이 動物³³⁾이나 事物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 그 逆³⁴⁾으로 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人間사이의 疎外는, 실제로는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은채 일어난다. 이 말은 현대에 있어서의 疎外는 우리 자신의 意志나 意識을 떠나 있다는 뜻이다. 우리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규약〉에 종속되어 있는듯이 행동한다. 人間の 生活은 인간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Gesetz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³⁵⁾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인간은 산업혁명에 의한 自己疎外로 인하여 이미 內面과 外面과의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직업과 노동이라는 명예를 걸미지고 있는 현실의 세계와 人間이고져 히는 內面의 세계사이에는 이미 균형이 무너졌으며, 個人的인 自我는 노동의 세계에 잠식되어 버린 실정이다. 현실의 세계에 대한 自我의 疎外는 동시에 인간의 모든 부분영역이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人間은 자신으로부터

31) Vgl. F. Kafka ebd., Bd. IV S. 120f.

32) F. Kafka Tagebucher, S. 340.

33) „Die Verwandlungen“에 있어서의 Ungeziefer로의 變身 또는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에 있어서의 Kafig로의 變身(心理的인 地平面에서의)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4) „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에 있어서의 Rotpeter의 인간으로의 變身을 들 수 있다.

35) Vgl. F. Kafka Gesammelte Werke, Bd. VI.

터 완전히 疎外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의 노동세계에 있어서, 人間의 內面과 外面영역사이의 연관이 파괴되어 있으므로 해서, 人間은 자신의 存在의 統一에서 전락하여 動物이나 事物로 되는 것이다.

카프카의 形象世界에 있어서는, 人間의 內面과 경험적인 對象의 세계 사이에 이미 아무런 關係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疎外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사이에 어떤 論理的인 혹은 心理的인 關係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프카의 작품세계는 바로 그 態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疎外의 과정을 충격적으로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즉 우리들의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를 形象의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로 모순하는 形象을 창조해서는, 그 合一할 수 없는 모습들을 合一하지 않은채 내버려 두고 있다. 그 形象의 요소들이 상호 모순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그 形象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길피가 되고 있다.

VI

카프카의 形象世界는 神話가 갖는 本質的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³⁶⁾. 그 本質의 하나는 全體性 즉 보편적인 삶의 현실을 形象의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그 本質의 다른 하나는 時間의 止揚 즉 同一한 事物이 원을 그으면서 再歸하는 것을 의미한다.

Gracchus는 자신의 운명을 歷史家들이 잘 알고 있는 „歷史的인 悲運“³⁷⁾으로 느끼고 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어느 책에도 쓰여 있으며, 어느 학교에서도 선생들이 이것을 필란에 써 보인다“³⁸⁾

Gracchus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삶은, 한편으로는 宇宙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歷史家들이 잘 알고 있는 歷史的인 사건이다. Gracchus의 보편적인 이야기의 意味와 意義는 모든 存在者 자체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세계의 극히 보편적인 合法則性和 이의 意義解明을 모든 地上的인 存在者의 경험적인 탐구에서 얻고자 하며, 原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全世界를 外延的인 총체성의 形式³⁹⁾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동시에 Gracchus의 宇宙的인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存在者의 비밀을 밝혀 준다.

카프카 文學의 모든 形象은 이 존재자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形象이든 그 本質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곧 세계와

36) Vgl. W Emrich Die Bilderwelt Franz Kafkas

37) Kafka ebd. Bd. V S 250.

38) F Kafka ebd S 250

39) Vgl W Emrich· F Kafka, S 40ff

自我와 事物이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다.

神話的인 文學이 갖는 다른 本質的인 요소로서 <時間의 止揚>을 지적한 비 있는데, 이는 일정한 歷史的인 상황이 항상 같은 힘의 영구적인 운동으로 변용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 힘은 個人的이면서 동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不可視의 <운명의 힘>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리고 이 운명의 힘으로부터의 도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Giacchus는 리바의 市長에게, 자신은 이미 어러해 집에 죽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살아 있다고 고백한다.

„나의 시체를 운반하는 조각배가, 진로를 잘못 잡았던 것이오 키의 잠는 방법이 틀렸거나 혹은 나의 고향의 절경에 마음을 빼앗겼거나 무엇이 어쨌는지는 일 수 없으나 어쨌든 나의 육체는 이 지상에 남아 있으며, 너의 조각배는 그때 이래로 이 세상의 물위에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 이유로 죽었으면서도 나는 地上의 모든 나라들을 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라고 시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나는, 사냥꾼은 대답했다, 언제나 커다란 계단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큰 계단 위에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 커다란 비약을 해서 천국의 문이 보일 것 같은 곳에 왔다고 생각하고서 눈을 뜨면, 나는 변함없는 베에 다고 있습니다. · 옛날의 너의 죽음의 과오로 인하여 나는 선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⁴⁰⁾.

카프카의 作品世界는, 또 하나의 生の 시적인 죽음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이다.“⁴¹⁾ 여기에서의 다른 또하나의 삶이란, 佛敎의 輪廻說과 흡사한 것이다.

„인식이 시작했다는 첫 표시는 죽고 싶다고 바라는 일이다. 이 삶은 건널수가 없고, 또 하나의 삶에는 이를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미 죽으려는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삶어진 낡은 독방에서 벗어나 새 독방으로 옮겨지고 싶다고 요구한다. 그곳도 한참 뒤에는 삶어질지도 모른다“⁴²⁾

카프카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間 영혼의 輪廻를 동경하고 있다. 그의 거의 모든 作品에서 반복해서 창조되는 모델도 이와 유사한 存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作品은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고 <처음>도 없는 셈이다. 단지 무한히 계속되는 수레바퀴가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變轉>이라고 하는 장대한 宇宙의 神話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 시쥐프스의 <영원의 責苦>를 의미한다.

측정할 수 없는 카프카의 形象世界 그것은, 그 자신의 내면에 認識의 빛은 한가닥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모순된 구조에 독자는 어리둥절하게 되며, 독자만이 아니고 카프카의 주인 공마저 절망적으로 시달리는 世界이다. 그것은 모순을 영속적으로 거듭하고, 의미없이 원을 긋고 再歸로서 성립된 세계이며, 그 속에 질서를 세우고져 노력하나 이미 허시이고, 여

40) F Kafka ebd Bd V S 77.

41) F Kafka ebd. Bd VI S 89.

42) F. Kafka ebd. S 31. (譯書「標題 없는」隨想 p 10)

전히 無秩序로 역진해 가는 하나의 時代像을 반영하고 있다.

VII

小品 „Der Jager Gracchus“에 있어서는 生과 死, 육상의 생활과 水上의 생활, 사냥꾼과 뱀사공의 수호신, 이승과 저승등 여러 表象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주인공 Gracchus는 이와 같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兩極으로부터 차단된채, 異空間으로서의 中間領域을 표류하고 있다. 中間領域을 표류하는 Gracchus는 도리혀 그때문에 <生>에만 한정된 所有의 세계에 억매이지 아니한채,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자연과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Gracchus의 세계는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서 日常의 <生>위에 편재해 있다⁴³⁾. 예를 들면 어린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여성적인 세계에도, 상품을 거래하는 경제적인 세계에도, 연인들의 애정의 세계에도 편재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人間世界뿐이 아니고, 별(星辰)·눈·비의 自然의 세계에도 두루 편재해 있다. 그러나 단지 地上의 日常의인 生活에 국한시킨 좁은 시야에서 관찰한다면, Gracchus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地上의 모든 <生>의 배후에 Gracchus의 모습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Gracchus는 地上의 기존의 秩序나 習慣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고 있지 아니 하나, 기존의 질서나 습관을 뒤흔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Gracchus는 죽어 있으면서 어느정도 살아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그의 죽음의 배가 항로를 잘못 들어섰기 때문인데, 이 잘못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가 여전히 „이 지상에 머물고 있다“⁴⁴⁾고 하는 것이다. 작가 카프카에게 있어서는 이 불확실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生과 死, 육지와 물 그 어느쪽의 極에도 소속하지 않은채, 兩者의 中間領域을 표류하는 Gracchus의 存在狀況을 創造하는데 있다.

상호 대립하는 兩極사이를 浮動하는 Gracchus의 모습에는 어찌할 수 없는 自己撞着이 있다.

Gracchus의 存在의 본래적인 특수성은 바로 이 兩極性에 있으며, 이 兩極性은 결코 單純化되지 않는 점에 있다. 그는 이 兩極사이를 끊임없이 浮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浮動 그자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것은 극히 견디기 어려운 不安한 生活方式이다. Gracchus의 불안한 생활방식은 카프카 자신의 불안한 삶의 意志이다.

43) Vgl. F. Kafka: ebd. Bd. V. 248f

44) F. Kafka: ebd. Bd. V. S 77.

„不快感を 부여하는 것은 이 이야기 뿐이 아닙니다. 도리히 우리들의 一般的인 時代와 나의 특수한 時代가 똑같이 매우 불쾌한 것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의 특수한 時代는 一般的인 時代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불쾌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⁴⁵⁾

카프카는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분명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당파적으로 어떤 선명한 立場에 서 있지 아니했다. 이 立場이 없는 立場은 분명 고독의 괴로움을 안고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想像上으로는 모든 立場에 설 수 있는 自由가 보장되어 있다. 카프카는 어느 祖國에도 소속하지 않고, 어느 폭군의 손에도 닿지 않은 곳에서, 眞空과 純粹의 한가닥 빛으로서 虛僞의 세계 한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racchus의 存在에 나타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두개의 세계는 카프카의 자의적인 혹은 공상적인 構成이 아니고 우리들의 現實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개의 세계는 사실상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의 世界 즉 人間世界인 것이다. 카프카의 Roman의 모델이 되고 있는 小品 „Der Jäger Gracchus“는 독자의 가슴에 쓴 하나의 眞實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Literaturverzeichnis

Texte: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Taschenausgabe in 7 Bänden, Frankfurt a.M., 1976
 Franz Kafka: Tagebücher (1910~1923), Frankfurt a. M., 1975
 Franz Kafka: Briefe (1902~1924), Frankfurt a.M., 1975.

Sekundärliteratur.

Anders, Günther: Franz Kafka pro und contra, München, 1972.

Binder, Hartmut: Kafka-Kommentar zu den Romanen, Rezensionen, Aphorismen und zum Brief an den Vater, München 1976

Demmer, Jürgen: Franz Kafka, München 1973

Emrich, Wilhelm: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n 20. Jahrhundert, hrsg. von Hermann Friedmann und Otto Mann, Heidelberg 1954

Emrich, Wilhelm: Franz Kafka, Das Baugesetz seiner Dichtung, Wiesbaden 1975

Emrich Wilhelm. Protest und Verheißung, Frankfurt a. M. 1960

Brod, Max: Franz Kafka, eine Biographie, Berlin-Frankfurt a.M., 1954, 3. Aufl.

Sokol, Walter H.: Franz Kafka — Tragik und Ironie, München-Wien 1964.

Wagenbach, Klaus: Franz Kafka. Eine Biografie seiner Jugend (1883~1912), Bern 1958.

Benjamin, Walter: Franz Kafka, in: Franz Kafka, hrsg. von H. Politzer, Darmstadt 1973.

45) F Kafka Briefe (1902~1924), Frankfurt a M 1975, S 150.

Über F. Kafkas Erzählung „Der Jäger Gracchus“

Huan- Dok Bak

Kafkas fragmentarische Erzählung „Der Jäger Gracchus“, die bekanntlich auf seine persönliche Erfahrungen in Riva sowie auf seine schwankenden Beziehungen zu Geliebten Felice zurückgeht, stellt eine unsichere Situation dar, in der man ständig zwischen zwei unüberbrückbaren Welten hin und her schwebt.

Der Jäger Gracchus, der schon seit vielen Jahrhunderten tot ist, tritt in der Erzählung als ein lebender Mensch auf. Der tote, aber „gewissermaßen“ immer noch lebende Gracchus hat nirgends zu Hause, weder in der Totenwelt noch in der Lebenswelt, weder in einer metaphysischen noch in einer realen Sphäre, er wandert wie ein Grenzgänger ständig irgendwo zwischen den beiden Welten, deren Annahmungsöglichkeit praktisch ausgeschlossen sind.

Die schwebende, „ewig“ wandernde und widersprüchsvolle Existenz, die sich in dieser Erzählung deutlich erkennen läßt, bildet ebenfalls jene Grundsituation, der wir in Kafkas drei großen Romanen begegnen.

Der springende Punkt in unserer Erzählung liegt aber darin, daß der Held paradoxerweise gerade wegen seiner fehlenden Zugehörigkeit in der Lage ist, die gegensätzliche Welt als solche genau zu beobachten und schließlich diese als eine vorgegebene Welt als Schicksalsbühne des Menschen erfaßt wird, entsteht wiederum eine neue Angst und Unsicherheit, die letztlich ganze Kafkasche Welt ausmacht.

Die Erzählung „Der Jäger Gracchus“ ist so gesehen nicht anderes als eine Widerspiegelung der inneren Physiognomie des Autors. Der Name „Gracchus“ bedeutet nach lateinischer Etymologie, wie W. Emtich nachweist, „Dohle“, die tschechisch eben „kavka“ heißt.